



국립대학육성사업 전북대학교 소식 | 2024.02

함께 그리고 앞으로

‘전주의 미목(眉目)’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터에 자리 잡은 전북대학교. 대학의 걸음에는 늘 지역과 지역민이 있었습니다.

도립 이리농과대학을 모태로 1951년 전북대학교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도민들이 기금을 모으고 마음을 보탬던 순간들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지역거점국립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전북대학교 소식지 | 2024.02

통권 제1호 | 발행처 전북대학교신문방송사 | 발행인 양오봉 | 편집인 최용준
제작 전북대학교신문방송사 | 학생기자 백수아, 이영재, 이예령, 박미소, 하예원, 조민혁, 이다현, 송주현, 박시현, 박익진, 백선영

동행인터뷰 04

이준영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집중탐구 08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업단은 지금 12



당신에게 더 가까이 지역속으로 중앙도서관

이준영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2023학년도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습니까?

대학과 지역의 상생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도서관은 인문학 강연인 '지역과 함께 책 읽는 도서관', '도서관, 지역과 함께 쓰다', '터커머스' 전시 공간 조성, 미술품 대여지원 등 대학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릴레이 인문학 강연 '지역과 함께 책 읽는 도서관' 기획 취지가 궁금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민,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또, '지역과 함께 책 읽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과 지역민에게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강연이 진행됐나요?

A. 지난해 10월 12일 『역행자』를 집필한 전북대학교 출신 자청 작가 강연을 시작으로 ‘

그것이 알고 싶다', '알쓸신잡' 등 여러 예능·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법의학자 이호(의대·의학)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김병기(인문대·중어중문) 명예교수의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진실'의 강연이 2023년 릴레이 강연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 등 총 620명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 교수와 본교 출신의 작가로 강연진을 구성해, 전북대학교가 가진 우수한 학술문화 콘텐츠를 지역에



홍보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도서관, 지역과 함께 쓰다’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접 책을 발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3 책쓰기 프로젝트’는 전북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민 또한 참가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하나의 완전한 글을 작성하도록 돕고 이들의 글을 엮어 책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체 참가자 중 40%는 지역민을 우선

선발했습니다.

책쓰기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선발된 참가자들은 지난 8월 23일부터 6주간 △출판시장에 대한 이해, △독자의 흥미를 끄는 도입부 작성 방법, △1:1 맞춤 초고 완성법, △책 제목 및 디자인 결정 등 매주 1회, 약 1시간 30분 동안 비대면 글쓰기 수업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1명 당 10~15페이지 분량의 글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신춘문에 등단 작가의 글쓰기 지도 및 1:1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거쳤

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글들을 묶어 3권의 책으로 출판했으며, 중앙도서관 자료로 등록해 3층 주제자료실 인기도서코너에 전시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대출도 가능합니다.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마련된 ‘더커먼스 (THE COMMONS)’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에서는 1층 로비

공간에 ‘더커먼스(THE COMMONS)’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조성된 ‘더커먼스(THE COMMONS)’ 공간은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 제공과 사람중심의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어떤 전시가 진행됐나요?

2022년 10월 구경선 작가(캐릭터: 베니)의 ‘너를만나서 행복했어’를 시작으로 지난해 김지훈 학생의 개인전과 ‘시담사’, ‘차곡차곡’ 등 연간 총 6회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미술품대여지원사업’으로 추진된 ‘EXHIBITON 아트그룹 아띠 X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도내 역량이 있는 청년작가들의 예술품을 통해 지역예술인을 발굴하고 대학-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의 문화적 기능을 적극 수행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술품 대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술품 대여지원사업’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도내 공공기관 등에 역량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임대·전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일상 곳곳에서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미술작가들에게 새로운 전시·유통 시장 환경 및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앙도서관은 문화 콘텐츠의 전시공간 제공을 통해 아이디어 및 창의적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릴레이 강연을 진행하면서 도서관 로비에 600명이 넘는 지역민과 학내 구성원이 함께 도서관 시설을 즐기고, 강연과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소통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청 작가의 열혈팬인 지역민 회원, 인간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학생, 우리 역사를 애정 있게 바라 보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참여자 모두가 우리 도서관이 가진 특별한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즐기는 행사였습니다.

올해 중앙도서관의 포부 및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학술·연구 지원이라는 대학 도서관이 가진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며, 이외에 글로벌대학 선정에 발맞춰 지역민과 더 붙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북 지역의 대학생이나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가진 우수한 학술자원을 공유하고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1층을 북카페 형식과 강연장을 포함한 이용자 친화적인 개방형 시설



로 리모델링 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술문화 복합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성원과 지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학생·직원·교수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는 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중앙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개별 국립대학의 발전전략 수립과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됐다. 전북대학교 역시 2018년 ‘글로벌 에듀, 따뜻한 동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혁신의 거점, 새로운 혁신 모델 정립,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2023년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전북대학교의 발자취를 모아봤다.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선물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

성황리에 종료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목요시네마 뮤즈, △제23회 전북독립영화제 초청작 특별상영과 영화음악 버스킹, △배리어프리 상영회 등 총 세 가지의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목요시네마 뮤즈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처음 선보였으며, 올해는 월마다 다른 주제를 선정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다른 주제로 지역민을 찾았다. 또한 제23회 전북독립영화제 초청작 특별상영과 영화음악 버스킹이 개최됐다. 박물관 잔디밭에서 영화음악 버스킹으로 막을 열었으며, 강당에서 초청작 특별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한편 박물관은 지난 2018년을 시작

으로 매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영화 감상을 돕기 위한 ‘배리어프리 상영회’를 개최 중이다. 올해 상영회는 전주시 수어통역센터 회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1947 보스톤’ 상영, △점자 책갈피 만들기, △수어 거울버튼 만들기, △QR코드 전시해설 체험, △안대와 귀마개 쓰고 영화 보기(비장애인 대상)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색 문화행사, ‘아프리카? 아프리카!’ 진행

아프리카의 문화를 체험해 보는 이색 문화 행사, ‘축제,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지난 9월 19일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아프리카와의 활발한 문화 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문화행사에는 주한 모로코 대사관과 주한 르완다 대사관이 함께했으며, 전북대 유학생을 포함한 학생들과 지역민들 2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행사는 서아프리카 예술 공연 단체, ‘릴리’의 아프리카 전통춤으로 화려하게 개막해 1부는 모로코와 르완다의 문화 자료 전시가 진행됐다. 이어 모로코 ·

르완다 대사관들과의 대화, 모로코 전통차 시음, 르완다 전통 커피 시음, 아프리카 전통 의상 체험, 아프리카 홍보 영상 상영이 포함된 2부로 막을 내렸다. 박물관은 ‘축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문화행사를 통해 전북대 학생, 유학생, 지역민이 아프리카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학내 구성원과 지역민이 즐길 수 있도록 이색 문화행사를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내 손안에 펼쳐진 자연 한 줌

메타버스를 통해 만나는

자연사박물관 콘텐츠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이 일부 전시실을 옮겨놓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메타버스 자연사박물관은 건물외부, 로비, 강의실, OX 퀴즈룸, 기획전시실 I, II 등 7개의 맵으로 구성되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박물관을 둘러보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메타버스 생태교육프로그램인 '나는 분류학자!'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고 온라인 전시실에 전시돼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OX 퀴즈룸은 '나는 분류학자!'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강의와 관련된 퀴즈를 풀며 학습한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과 생명의 신비를 배워요,

자연사 생태교실

지역민을 위해 무료로 진행한 '자연사 생태교실'은 전북대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연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참가자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한 '미니사사 프로젝트'와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한 '식물세밀화 교실'이 함께 진행됐다. 미니사사 프로젝트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생태계 탐구 및 체험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이며,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30명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생물(어류) 분야에 참가한 학생들은 '생태계의 탐구'를 주제로 김익수(자연대·생명과학) 명예교수에게, 지질 분야에 참가한 학생들은 '암석을 통해 보는 지질학적 역사와 지구 내부의 신비'를 주제로 오창환(자연대·지구환경과학) 명예교수에게 지도를 받았다. 자연사 생태교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된 제5회 '식물세밀화 교실'은 식물이 가진 과학적 특징을 관찰하여 그림으로 자세하게 묘사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식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전북대 체육시설

▲대운동장



동아리전용관 옆에는 우리학교에서 제일 큰 운동장인 대운동장이 위치하고 있다. 대운동장은 전북대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밤에는 학내 구성원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된다.

▲소운동장

제2학생회관 뒤에 위치하고 있는 소운동장은 농구와 족구를 하는 학생들로 붐빈다. 소운동장은 다른 고등학교 농구장에 비해 우레탄이 깔려 있어 농구하기 좋다.

▲골프연습장

골프장은 오후 8시에 끝나기 때문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학생은 주로 수업이 끝난 후나 공강 시간에 연습을 할 수 있다. 골프장은 매월 학생은 4만 원에, 교수는 6만 원으로 다른 골프장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테니스장



전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새롭게 단장된 곳은 예대 3호관 뒤쪽에 자리한 테니스장으로 기존 3개의 클레이코트에 인조 잔디 코트가 설치됐다. 또한, 노후화된 야간라이트 4개가 개선됐으며 테니스장 관리동 및 탈의실과 샤워실 보수도 진행됐다.

나를 나아가게 하는 오감의 향연



지역민을 위한

무료 인문학 아카데미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글로컬 대학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2023학년도 무료 '인문학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이뤄진 '인문학 아카데미'는 양병호 평생교육원장이 지난 2022년부터 기획한 사업으로, 당시 지역민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주제를 매우 쉽고 유익하게 풀어준 강의"라는 호평을 얻은 바 있다.

2023년 '인문학 아카데미'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됐다. 강의를 인문학 관련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매 차시마다 선

착순 10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이철량(예대·미술) 명예교수의 '현대미술로 읽는 인문정신', 서철원 소설가의 '역사적 사실과 인문학적 상상력', 유인실 시인의 '시인들의 시인 백석의 삶과 문학', 정진용(예대·미술) 교수의 '한국화의 이해', 권호순 도서출판 '시간의 물레' 대표의 '읽기의 힘', 정용준(사회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의 '가짜 뉴스 시대의 SNS와 유튜브 제대로 알기' 강의 등이 진행됐다.

지역협력 평생학습

프로그램 무료 진행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지역민의 평생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협력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해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된 무료 평생학습 강의다. 해당 강의는 개인 맞춤형 웨이트 트레이닝, 나폴리 힐링 만들어진, 유화, 서각, 와인소믈리에, 인물을 통해 보는 새로운 한국사, 치유&생활꽃꽂이, 업사이클링 지도사 교육, 키오스크 및 생활 애플리케이션 교육 등 여러 분야의 강좌로 이뤄졌다.

한편,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매 학기 지역민을 위해 200여 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학습 기회 제공 및 학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복지학부, 생활교양학부, 어문학부를 비롯한 6개 학부에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전북 권역 워크숍 개최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가 2023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전북권역 워크숍을 갖고 지역 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1월 12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세 대학이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사업 소개, 직무교육, 우수 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백기태 전북대 기획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3년부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재정이 크게 확충되고,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통합돼 실무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자리를 통해 세 대학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CHATGPT(이하 챗피티)와 AI 도구 활용 방법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주요 주제는 △인공지능의 활용과 그 중요성, △AI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활용 분야, △AI 기술의 저작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이었다. 강연을 맡은 유소영 강사는 “우리의 삶에 인공지능이 아주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각 대학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전북대는 장미선(생활대·주거환경) 부교수가 주거환경학과에서 진행했던 ‘지역건강복지실현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장미선 부교수는 “대학이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에서 일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람차다”고 밝혔다.

전북대-부산외대,

특수언어캠프 개최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2023년 ‘전북대-부산외대 특수외국어 언어캠프’가 하계와 동계 각 2주간 성공리에 진행됐다.

특수외국어란 국가 간 관계 등에서 중요도가 높아진 국가의 언어임에도 접할 기회가 적어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언어로, 특히 호남권에는 동남아 관련 교육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대와 부산외대는 이러한 언어 교육을 위해 2019년 여름부터 의기투합했다. 캠프를 통해 현재까지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구자 등 500여 명이 미얀마어와 캄보디아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의 특수외국어를 공부했다.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측은 “동남아 언어교육에서 소외된 여러 지역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언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북대와 부산외대의 언어교육 운영 경험을 결합한 ‘아시아 특수언어 캠프’가 탄생했다”며 “연대의 경계를 두 대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해 동남아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과 시민에게도 개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북대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강사 숙박비, 캠프 운영비, 학생 기숙사비, 버스비,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법률지원센터,

지역민 무료 법률상담

법률지원센터에서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무료법률상담’이 호평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무료법률상담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문) 재학생과 현직 변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북대학교 학생은 물론 지역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법률상담은 본래 전북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약 8년 전부터 상담 대상을 도내 지역민으로 확대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부터 전북대학교 구성원, 지역민 등이 전세사기 피해 및 각종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률지원센터에서는 1년 동안 180개의 사건을 해결했다.

해외봉사단 230여 명 파견

몽골, 베트남 등에서 활동

전북대학교가 2023학년도 총 230여 명의 해외봉사단을 세계 곳곳에 파견해 사랑의 손길을 나눴다.

2023학년도 해외봉사단 활동은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계 해외봉사단은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했으며, 동계 해외봉사단은 필리핀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약 15일 동안 현지에서 머물며 한국어 교육, 의료 및 나눔 봉사 K-POP 댄스 및 사물놀이 등 문화 봉사를 진행했다.



신문방송사,

지역 아동과 콘텐츠 제작 화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과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콘텐츠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 방학 기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신문 또는 영상을 제작했다. 이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북대학교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이 팀을 이뤄 지역사회 관련 신문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는 신문방송사 학생과 기린지역아동센터, 중산지역아동센터, 초록별아동센터, 완산골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이 참여했다. 전북대학교 학생들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5일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콘텐츠 기획, 인터뷰, 취재, 글쓰기, 촬영, 편집 등을 교육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콘텐츠 제작 과정 전반에 참여했으며 신문에 어린이 기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익지(전주시·11세) 양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방법을 배우고 인터뷰 등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남희 기린지역아동센터장은 “아이들이 지역 사회 조사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체험을 하면서 마을에 애정을 가질길 바란다”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서 만든 신문은 지역 도서관과 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포됐다. 영상 콘텐츠는 전북대신문방송사 홈페이지와 UBS 전북대학교 방송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BS728)에 동시 게재됐다.

청소년 아트테라피 J.A.T

전시회 개최

미술 체험을 통해 기소유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전북대학교 청소년 아트테라피 J.A.T(JEONBUK NATIONAL UNIVERSITY ART THERAPY)가 화제다.

본 프로그램은 예술 활동을 통해 범죄를 되짚어보며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건부 기소유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2년에 171과 271 프로그램이 이뤄졌으며 2023년에는 371과 4기 총 2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와 강사가 직접 청소년에게 조각, 조소 등 창작 활동을 가르치며 배려와 소통을 배우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활동 마지막에는 그동안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강사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경직된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회차 진행될수록 강사진과 청소년들 사이의 친밀감이 형성됐다”며 “마지막 주에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청소년 아트테라피 4기가 직접 제작한 창작품 전시회는 2024년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됐다.

수의대학,

반려동물 한마당 개최

반려동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물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2023 반려동물 한마당’이 2023년 9월 23일 전북대학교 소운동장에서 열렸다.

반려동물 한마당은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전북대학교 수의대, 전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대한수의사회, 전북수의사회 등의 후원을 받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수제인식표 만들기, 반려동물 장난감 만들기, 반려동물 사진 그림책 만들기, 반려동물 MBTI 검사, 비즈목걸이 만들기, 발세정제 만들기, 노즈워크 미로 체험 등 다양한 부스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한 간식 오래 참기 대회, 반려동물 골든벨 대회 등 반려동물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대회도 진행돼 참여자들의 발길을 끌었다. 반려견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채민경 놀로동물행동클리닉 수의사의 강연 역시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행사를 기획한 김재훈(수의·20) 제35대 수의대 회장은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추억을 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참여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밝혔다.



주거환경학과, 취약계층 주택 개선에 앞장

주거환경학과가 진행하는 '지역 공간 복지 구현을 위한 디자인 및 연구 지원 사업(이하 지역공간복지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선해 화제다.

지역공간복지 사업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불편함을 겪거나 주거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안을 참가자들이 제공하면 실제 공사까지 이어지는 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전주시 취약가구 주택 3개소와 경로당 1개소를 대상으로 공간의 불편함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가 학생들로 구성된 4개 팀이 한 건물씩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사업을 통해 개선된 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모와 중증주인 7세 시각장애 아동이 사는 곳으로 거주기간이 5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부부가 거주하는 불량주택, 주거약자용 순환형 임대주택, 구조적 안전과 누수 문제를 보유한 한옥 경로당 총 4곳이다.

이곳들은 공간 제약, 양변기 및 욕실 교체, 단열, 타일 재부착 등을 통해 안락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주거환경학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전북형 주거복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포럼과 우수 졸업작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했다. 주거환경학과 측은 전라북도와의 연계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연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교육학부, 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

사범대 과학교육학부가 주최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블렌디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하 과학 축제)'이 2023년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과학 축제는 사범대 과학교육학부 학생들이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이다. 본 행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19년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현장에 오지 못하는 참가자를 위해 메타버스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병행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과학 축제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우리 학교 과학관에서 진행된 현장 부스 체험과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게더타운' 메타버스 부스로 구성됐다.

현장 부스는 '화려한 DNA가 나를 감싸네(생물)', '뒤뚱뒤뚱 오독이 중심을 잡아보아 요(물리)',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무지개꽃 만들기(화학)', '무지개 물탑 쌓기(화학)' 등 39개의 실험 체험 부스로 구성됐다. 메타버스 부스는 '채집 브이로그-다양한 생태 관찰하기', '우리 몸에 흐르는 미세전류', '어류 골격염색' 등 17개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 학생과 상담할 수 있는 '멘토링관(멘토링룸)'도 진행됐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성황리에 종료

뜨거운 성원 속에 진행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크로아티아 출신의 마토세비치 마르티나(한국어연수 · 23)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국제처 언어교육부 한국어학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2023년 11월 22일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앞 전용 무대에서 진행됐다. 외국 국적을 소지한 전북대학교 외국인 재학생만 참가 가능했던 것을 외국 국적을 소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재학생, 언어연수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11월 17일 예선을 거친 외국인 참가자들이 11월 22일 본선을 치렀다. 대회 당일, 추운 날씨에도 한복 또는 모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저마다 개성을 뽐냈다.

대회를 관전한 파이살 아메드 프린스(국제이공학 · 20) 씨는 "학생들끼리 유대감을 쌓을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며 "한국어로 말하는 실력이 더욱 좋아진다면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국제처 측은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와 함께 대회를 진행한 덕분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관객들의 호응도 좋았고, 참가자 학생들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대회를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목재가공지원센터, '목공에 체험 교실' 진행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가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지역과 함께하는 목공에 체험 교실(이하 목공에 체험 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목공에 체험 교실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목공에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목공에 체험 기회가 흔하지 않은 만큼 도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이에 2023년 목공에 체험 교실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물론 가족 단위 등 총 240명의 지역민이 참가했다.

목공에 체험 교실은 유치부 활동인 '찾아가는 목재 감각 익히기 체험 프로그램' 9회, 가족부 활동인 '목가구 제작 체험 프로그램' 2회 총 11회 진행됐다. 유치부 활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목재가공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이뤄졌으며, 프로그램은 △오감 체험, △목재에 관한 쉽고 재밌는 이야기, △중증기기관자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부 활동인 목가구 제작 체험 프로그램은 화차당 여덟 가족을 선정해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 위치한 목재가공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목재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한 후 목재 선반장을 함께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해 가족 간 친밀감을 높였다.

목공에 체험 교실 참여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유치부 활동은 5점 만점에 4.97점, 가족부 활동은 4.98점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락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 팀장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개최되길 지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라며 "2024년에도 알차게 준비해 더 많은 지역민과 교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생대 학습림, '숲 힐링' 종료

농생대 학습림이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진행한 '대학 학습림 숲힐링(이하 숲힐링)'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숲힐링 프로그램은 도심 속 자리한 전북대학교 덕진학술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13명의 지역민이 참가했다.

숲힐링 프로그램은 게임을 진행하는 '숲 체험교육'과 수목 표찰을 직접 설치하는 '나무 이야기'라는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진행된 숲힐링 프로그램은 9월부터 3차례 우리 학교 농생대 학습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자를 받아 총 18회 진행됐다.



박세익 학습림 조교는 자연스럽게 숲과 환경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숲힐링 프로그램이 숲과 생명, 도심 속 숲의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다고 생각한다"며 숲힐링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박세익 조교는 "프로그램의 수준과 참가자의 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2024년 숲힐링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행복드림센터,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 행복드림센터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전북대학교 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드림센터는 정신건강상담, 심리검사 해석상담, 마음산책특강 등 '마음건강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1으로 밀착해 개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정신건강상담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트라우마, 자살 등을 주제로 신청자에 한 해 한 사람 당 매주 1회, 50분씩 총 10회씩 진행되고 있다. MBTI · LCS 성격검사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상담을 포함하는 심리검사 해석상담 프로그램 또한 매달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이 정신건강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음산책특강은 2023년 3월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매월 신청자를 받아 총 6회 진행됐다. 2023년 마음산책특강은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대인관계)', '집중이 안 된다. AD/HD인가(성인 AD/HD)', '미루기 극복(좋은 습관 만들기)', '갯생 살기(행복한 미래계획 세우기)', '자해에 대한 이해와 대처기술', '가깝고도 먼 사이, 가족'을 주제로 이뤄졌다.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

